

# ‘자아’ 벗고 행복해지자

<ego>

통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스님은 40여 스님과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수행자가 아집과 분별심을 버리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법문했다.

“괴로움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독립된 실체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서부터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 외부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식상의 개념이나 생각으로만 존재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에 좋다, 나쁘다 등의 실재하지 않는 자질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이 그 사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을 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투사한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서 반응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풀 길은 이러한 그릇된 견모습을 깨물어보는 지혜이니, 이것이 바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투사한 것일뿐 비어있음을 즉,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된 터전에 기초를 둔 자아(ego)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스승이 할 일은 제자가 자아를 벗어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생긴 용기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잃는 대신 우린 붓다가 됩니다. 그것은 자아를 대신해 통합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문의 핵심은 법회를 마치고 사부대중이 한글과 영어로 합송한 ‘회향기도’에 웃음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덕으로 견성해서 우리 원수 번뇌 극복해 생로병사에 매달린 중생 해탈케 하소서. 보배로운 보리심 없는 이에게 생기고, 있는 이에게는 더욱 성장케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고 중생이 남아있으면 나도 남아있어서 중생 고통 해탈케 하소서.”

가초 스님은 이번 방한 기간에 14세기 티베트 불교의 스승 쯙까파 대사가 지은 <람림(Lam-rim,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바탕으로 불교의 근본 원리와 마음을 일으켜 수행해 나가는 단계 등을 한국 스님과 불자들에게 법문한다. 부산 흥법사(18일 오전 10시) 청도 운문사(20일 오전 7시30분, 운문사 스님 대승) 울산 해남사(20일 오후 7시) 부산 미타선원(21일 오전 1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22일 오전 11시) 해남 미황사(2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 승가학원구원(26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27일 오전 10시)에서 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보리심을 활짝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 툼텐 가초 스님은...

속명은 에이드리언 로이 펠트만으로, 1943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났다. 1969년 멜버른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971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열대의학 학위를 받았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뉴기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런던에서 학위를 받고서 의사로 일하던 중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친구들과 여행하다가 인더스 강을 장장 1000km에 걸쳐 작은 범선을 타고 여행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삶의 화두였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던 중, 네팔 카트만두에서 라마 예세와 라마 조파 린포체의 명상 강좌를 듣게 되고, 18개월만에 출가를 심한 다.

1975년 네팔 카트만두 코판사원에서 사미계를 받고, 1977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티베트 스님이 된 뒤로 네팔에서 무료 의료원을 운영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세계 곳곳의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불교와 명상을 가르쳐 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오스트레일리아 캔거루 섬에 홀로 인거하며 3년 무문관 결사를 마쳤고, 2009년 3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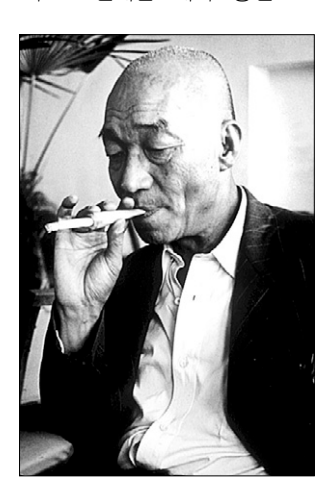
### 65. 풍초도인 오상순 선생

“품끝에 맺힌/ 한 방울 이슬에 / 해와 달이 깃들고 / 끊임없는/ 낙수물 한 방울이/ 주춧돌을 패여 구멍을 뚫고 / 한 방울의 물이/ 샘이 되고/ 샘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 사냇물이 합쳐/ 바다를 이루나니

오- 한 방울 물의/ 신비(神秘)한 조화(調和)여/ 무한(無限)한 매력(魅力)/ 단합(團合)의 위력(威力)이며 / 우주(宇宙) 영원(永遠)한 흐름이/ 크나큰 너 빌자취로 하여/ 더욱 난만(爛漫)한 진리(真理)의 꽃은/ 피는 것인가.” (오상순의 시 ‘단합의 결실’)

조계사에 화통(火桶)도인이 살고 있었다. 백송(白松) 옆 다 짜 그려져가는 요사채 수위실에서 연속해서 연기가 솟았기 때문에

되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불교로 개종, 21년 중앙불전을 나오 오고 보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전국 사찰을 전전하며 참선과 염불로 세월을 보냈던 운수객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시인이 되어 1920년에는 <폐허> 동인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직장에 가지. 따라 갈테야?” 따라가면 오래 명동의 청동다방이다. “6?25전에는 푸라워 혜성이 내 직장이었었는데, 수복 후엔 청동이야.” 그림자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공초다”하며 제각기 악수를 청한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처럼, 죽었다 깨난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이 기쁨을 안겨준다.

한번은 구상 시인을 만나, “야! 입마. 나는 기독교에 내 스스로 들어갔다 내 스스로 나왔고, 불교에 들어갔다 불교에서도 뛰쳐나왔다. 부처님이 불교를 불교 아니라고 해서 말이다.” 그래서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은 공초이고, 기독교를 대표

### 사찰서 참선 염불로 세월 보낸 운수객... ‘폐허’ 동인

한 때는 불자동차(소방차)도 왔었다고 한다. 이 도인이 있으면 방안에 빈 자리가 없다. 그런데 그 틈에서도 공초(空超) 오상순(吳相淳; 1894~1963) 선생은 두 다리를 뺀고 고개를 꺾어서 세운 채 잠이 든다. 머리맡에는 아침부터 피웠던 담배꽂이가 명자 그대로 ‘공초(空超)’를 이루고 있다.

원칠한 미간에 육계가 불룩 솟아오른 머리는 언제나 말끔히 정소되어 있다. 끝으로 갈수록 솟이 많은 눈썹, 오뚝한 코에 가무스레한 눈에서는 별빛 보다도 더 맑은 빛이 쏟아진다. 메기입처럼 쭉 찌진 입에 보조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500나한 가운데 한 분임이 틀림 없다.

1894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의동(魚池)학교를 나와 13세에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18년 도시사대학을 졸업한 후, 19년 교회 전도사가

서 폐허 속에서 개혁을 꿈꾸는 선각자가 되었다.

“아세아의 마지막 밤에 태어나서 / 여명에 이르는 동안 / 영원처럼 살다 가신 당신 / 평생 무일푼의 적빈도인으로 / 몸이 지닌 것은 물뿌리 하나뿐이었지만 / 언제나 가난을 모르고 살아왔던 당신 / 당신은 공산명월이었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고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하던 모습이 선연하다. 폭 큰 연기 속에 온갖 번뇌망상 다 날려버리고, 허공까지도 삼켜버린 공초도인을 사람들은 그 얼굴만 쳐다 보아도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공초도인은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간다.

하는 시인은 구상이란 평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종교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 것은 자연이다. 자연이 없이는 종교를 배태한 인간도 살아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도(道)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자연이 남이고, 도라는 것이 없을 때는 자연이 아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숙연히 머리를 숙이고 공초도인의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여. 말쑥한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병인(病人) 아닌 사람이 없으니 대중 보고 말라구.”

하면서 또 한 모금 들이킨 뒤에 하늘 높이 내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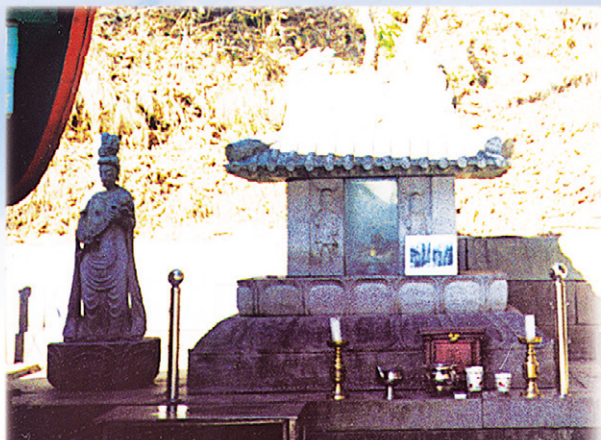
이것이 1961년 일이나, 공초 선생이 하직하기 2년 전이 아닌 가 생각된다.

# 설악산 동해사 감로법비 17주년 기념 대법회

## 동해사에 내리는 감로 법비를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망울!  
밤에도 낮에도 아 성스러운 광명이여!  
아 이 신비스런 법비의 광명이여!  
우리의 소원을 접수하소서!  
아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내려주소서.



지난 1992년 법비와 광명이 내린 이래 매년 그달 2시에는 여지없이 40여일 동안 매년 법비광명이 수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동해사 불탑사에서는 매일 기도정진과 초창기도 법회에 1일 수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철야정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도량에 불자님의 동참을 초청하며 사찰단위의 법회도 환영합니다. 이 성스러운 전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법비 광명의 광경을 친견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감로법비 17주년 기념 대법회 [2009년 10월 29일 오후 1시]

- ◇ 1부 : 연예인 초청 경로 대잔치
- ◇ 2부 :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초청 기념 대법회
- ◇ 3부 : 수계산림 대법회
- ※ 식사 및 숙식 무료제공 (예약을 요함)

### 법비광명 축제 및 기도기간

◇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 철야기도

※ 전화요청시 양양터미널에서 봉고차 운행